

전라도 말에는 전라도의 마음이 있다

황풍년 월간 <<전라도닷컴>> 편집장

1. 전라도의 삶과 문화의 축적, 전라도 말!

“우리 성님이 돼야지가 저 옷밭으로 올라가서 돼야지를 늑대가 물어 가게 생겼다고 그러. 글서 우리 막둥이 시아제하고 둘이 인자 틀어잡으러 갔어. 따라갈게 돼야지가 무장무장 올라가. (돼지한테) 오라고 내가 ‘도르래도르래’ 허라근게 우리 시아제가 야뉘 살인디 서 짤룬(혀 짧은) 소리를 해. 그런게 ‘도드대도드대’ 허고 있어. 궁게 고놈의 돼야지가 안 내려오네. 그리서 내가 정지 가서 된장물 타고 밥 쪼까 타서 갖고 와서 ‘도르래도르래’ 현게 따라오드라고. 포도시 몰아왔어. 글안허문, 산에로 올라가문 늑대가 물어가. 늑대가 무쇠. ‘오로로오로로’ 얼마나 무섭다고...”

지난 6월에 열린 ‘제4회 아름다운 전라도 말 자랑대회’에서 으뜸상인 ‘질로존상’을 받은 박앵진 할매의 말씀에서 이른바 (서울)표준말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열아홉 살 새각시 적의 시집살이를 충충한 기억으로 자분자분 풀어내시는데, 아흔셋이라는 나이를 믿을 수 없었다. 할매는 다정다감하고 풍성한 전라도 말의 보물창고와 같았다. 집나간 돼지를 얼러대며 뱀다는 ‘도르래도르래’ 소리하며, 늑대 울음이라면 ‘아우

~~' 쯤으로 판에 박아 놓은 상투적 표현을 무색하게 하는 '오로로오 로로' 흉내도 절묘했다. 소 돼지 키우며, 시부모 모시고 시동생 거두며 살았던 산골 할매의 삶이 질박한 전라도 말 속에서 진진하고 오롯했다.

전라도 말이라 해도 산 너머, 강 건너 확연하게 달라지기도 하고, 나란히 이웃한 마을들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지라 '전라도 말 자랑대회' 참가자들의 출신지가 다양할수록 전라도 말 잔치도 풍성했다.

박앵진 할매는 말투와 억양이 약간 느리고 '~근게'처럼 부드러워 전라북도나 인접한 영광 지역의 특성이 엿보였다. 대신 진도나 완도 출신 참가자들은 대체로 말이 빠르고 '~궁께'처럼 이야기 속에서 경음들이 툭툭 튀는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에서 잠깐 한눈을 팔다간 격랑 속으로 곤두박질칠지도 모르는 물일을 하는 어부들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다. 부자(父子)간이라도 "그런게 인자 저어기 밧줄을 좀 잡아서 던져 주십시오."라고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 "궁께 언능 밧줄 땡개주소."라고, 빠르고 격한 고품이 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식이다.

승어는 일 년 내내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 잡히는 물고기다. 특히 초여름 사리 때면 해남 우수영의 울돌목 가에서 뜰채로 잡기도 하는 흔한 물고기인데, 전남 신안의 신의면에서는 크기에 따라 '쌀모치, 보릿모, 모치, 외손재비, 누렁모, 무겔모, 승에'처럼 일곱 가지의 이름을 구별한다. 신안의 신의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구별하는 것일까? 그것은 승어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만큼 일상적이고 친근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육지라면 '승어'(성어)와 '모쟁이'(새끼) 두 가지면 족하겠지만, 다양한 크기의 고기가 늘 잡히는 섬에서는 크기에 따른 여러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 마치 예

스키모들이 여러 가지 눈(雪)을 구별하고, 몽골 사람들이 다양한 말 [馬] 이름을 구별하는 이치와 같다. 이처럼 어느 지역 방언을 잘 들어 다보면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떻게 지어진 집에서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이웃과는 어떻게 교류하며 지내는지 등이 모두 그들의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기갑, 《전라도의 말과 문화》, 지식과 교양, 2013)

전라도 어르신들의 말씀을 받아 적어 잡지를 펴내고, 더러 말잔치를 벌이면서 표준말이라는 작고 답답한 틀이 무척이나 아쉬워진다.

우리말이란 뿌리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리저리 갈래를 치고 천만 개의 잎과 꽃으로 무성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생명체와 같다. 지역마다 처한 환경과 생업,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의 표현들이 생성돼 유통되고 대물림되어 왔던 것이다.

전라도 말 역시 누대에 걸친 삶과 문화의 축적이요 전라도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투영된 소중한 문화 자산이다. 전라도 안에서도 섬마을 사람들은 물고기나 해초와 관련한 풍부한 어휘들을 만들어 내고, 산골에서는 온갖 풀과 약초들의 생김이나 색깔을 세세하게 구별하는 표현법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산과 들, 강과 바다, 갯벌에서 나는 오만 가지 식재료들로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면서 전라도 말의 풍성함을 더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라도 말에는 공동체적 삶과 문화를 유지해 온 미덕이 펄펄 살아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뒷전에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체의 원형을 유지해 온 마을이 많기 때문이다. 이웃과 더불어, 또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전라도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라도 말은 곧 전라도라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해 온 튼실한 바탕이요 도저한 정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2. 풍성한 감성의 언어, 전라도 말!

“들큰하믄서도 매콤하고, 매콤하믄서도 뒤끝이 아리아리한 게 손이
자꾸 그리로만 가제.”

전북 임실 관촌장의 고추장수 아집이 손님을 잡아끄는 말썬이시다. 손수 재배한 고추를 자랑하는 시골 아집의 감각적인 표현이 정말 기발하고 생생하다. 고추를 파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전라도 말이다. ‘맵다’, ‘달다’, ‘맛있다’ 등의 말이 가진 느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절감하는 순간이다. 이렇듯 책상물림의 말과 글이란 아무리 용을 써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연 발화한 전라도 말의 탁월한 감수성에 미치지 못한다.

근디 읊서 봉계 뉘 할매가 노지 것이라고 보릿뉘싹을 풀고 재깟어.
그놈도 한 주먹 사갓고 집에 와갓고 흥애 봉다리를 끌러봉계 오매!
창시가 꾸물꾸물 기나와. 사뭇다 싱싱헌계. 봉계로 때갈도 노릿노
릿험서 낭창낭창헌 것이 존놈으로 쫓드랑께. 시친디 사뭇다 칼칼이
시칠라문 잉갈라자불어. 보릿뉘싹도 씻그고 인자 솔단지에 물 모냐
붓고 마늘도 쪼사 여코 꼬치가리도 풀어 여코 인자 끼레. 풀풀 끼리
다가 인자 애를 너….

(황풍년, 《풍년식탐》, 르네상스, 2013)

오일장에서 흥어 애와 보리 새순을 사다가 옛국을 끓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전남 화순 출신의 주서영 씨는 30대 아가씨이다. 정겹기만 한 장터의 풍경이 눈에 선하고, 부엌 안에 자욱한 옛국의 퀴퀴한 냄새가 코

를 찌르는 듯한 말맛이 오감을 자극한다.

제철 음식과 관련한 취재를 다니면서도 닳고 닳아 식상한 말들 대신 이처럼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절묘한 수식들을 만난다.

‘보리누름에 정어리쌈’이라는 전남 순천의 아집이나 ‘나락 놀짱할 때 전어’가 맛있다는 광양 아집의 말씀들이 그러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부러지게 나눠 계절을 특정하는 건 얼마나 재미없고 빈약한 상상력인가 말이다. ‘누름’과 ‘놀짱’이라는 들녘의 색감이 통통하게 씨알 굵어진 생선과 마주치는 ‘제철’을 포착해 내는 전라도 말의 묘미라니! 예컨대 ‘가을 전어’쯤으로는 닿을 수 없는 말의 맛과 또렷한 현장의 느낌을 ‘나락 놀짱할 때 전어’에서는 와락 공감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전라도 말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인 쓰임을 가진 말들이 있다. 비슷한 말들이 많지만 꼭 집어서 대치할 수 없어 튀어나오는 말이거나,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맞춤형 전라도 말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 무척이나 효율적이기도 하다.

‘권 있다’는 말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다. ‘아름답다’거나 ‘귀엽다’는 정도로 풀이할 수 있지만 매력적인 외모를 이르는 말이 아니다. 첫눈에 확 끌리는 외양보다는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사람, 말과 행동, 마음 씀이 고운 사람에게 붙이는 사람됨의 보증처럼 쓰이는 말이다. 하여 ‘권 있다’는 말은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아우르는 표현이다. “저 아가씨는 얼굴은 이쁘는데 영판 권이 없어”, “저 총각은 일은 잘하는데 어째 권이 없어” 등의 용례를 보면 ‘권 있다’라는 말뜻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권 있다’라는 말처럼 음식에 대해서는 ‘게미(개미)지다’를 즐겨 쓴다. 겉 맛이 아니라 속 맛, 한번 좋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당기고 그리워지는 맛이 ‘게미진 맛’이다. 오래 묵은 장이나 묵은

지, 고향집 어머니가 손수 담근 된장으로 끓여 낸 토장국 등에서 나는 웅숭깊은 맛이다. 결코 가볍지 않는 감칠맛, 오래오래 입안에 남는 풍미를 ‘게미’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오지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느낄 때, ‘징하다’라는 말은 어떤 한계나 도를 뛰어넘는 경우에 쓰는 말로 상황에 따라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불쌍하다’보다는 상대를 향한 애뜻한 맘을 담아 ‘째하다’라는 전라도 말을 많이 쓴다. 또 ‘고맙다’는 뜻에 더하여 마땅한 답례를 하지 못하는 미안함까지 담아 ‘아심찬허다’라는 말을 왕왕 내놓는다.

전라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거시기’는 상황을 얼렁뚱땅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애매모호한 표현처럼 오해되기 십상이지만, ‘거시기’만큼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말도 드물다.

“어이! 거시기가 오늘 거시기 혼단디, 나가 오늘 쪼깨 거시기 혼께, 자네가 먼저 거시기 잔 해주소. 나가 언능 거시기 해놓고 시간 나문 거시기 흘랑께. 그라문 거시기 호소.”

친구의 애경사를 두고 바빠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신 부조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어떤 일이나 상황, 정서를 미리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거시기’다. ‘거시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전라도 말의 리듬과 유희가 그만이다.

3. 곱고 따스운 정과 애뜻한 맘이 오롯한 전라도 말!

“오매오매 시상에 저 내 아까운 새끼들은 꽃도 꽃도 못 피워보고 가 불었구나. 열매나 크나크게 될 사람도 있고 보통으로 될 사람도 있을 거인디. 모다 너머 아깝고 너머 째해.”

“많아도 않고 한나나 둘씩 나서 보기도 아깝고 몬치기(만지기)도 아
깝게 키웠을 꺼인디, 터럭 꼬터리만 다쳐도 깜짝바르르 놀랩서 키웠
을 꺼인디, 모다들 애런(어려운) 생활에 깔치기도 얼마나 심들게 키
웠을 꺼인디, 눈앞이 칠흑깜깜 낮은 없고 밤만 있제 말을 해서 뒗허
겼는가.”

“너는 누집에 이뻐 아그로 나서 이 시상을 덜 살고 이 시상을 못 살고
가뿌냐. 잘 가그라 손을 흔들다가 펍펍 울어. 헬리콥터 간 쪽으로 쳐
다보고 ‘고생하시오 고생하시오’ 절을 해. 고생해서 지발 한나라도
지발 어서 더 건져 도라는 맘이여.”

(월간 《전라도닷컴》 2014년 5·6월호)

전남 진도장의 할매들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에 젖어 말씀 도중에도
연신 눈물을 콧속 짙어내셨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향한 연민
에 북받쳐 뜨거운 눈물이 주름투성이 얼굴에 흘러내렸다.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꾸밈없이 토해 내는 전라도 말에는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설움에 자지러지는 어머니의 심정이 담겨 있다. 진도장 할매들이
투박한 전라도 말로 조목조목 빌던 만가(輓歌)는 여러 독자들의 심금
을 울리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사람의 말에 감동하고 진심을 소통하는 건 기실 ‘표준말이나 사투리
냐 하는 그릇보다는 내용의 참됨과 그릇됨에 있음을 절감한다. 제아무
리 번지르르한 표준말로 온갖 미사여구를 부린다 해도 진심이 느껴지
지 않는 위로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전라도 골골이 논과 밭, 바다와 갯벌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살아

온 우리네 부모들은 시련을 이겨내는 의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자세,
그리고 참사람의 도리를 환히 밝히는 금쪽같은 말씀들을 들려주신다.

“지내가는 거지도, 애기 업고 뒷 풀러 땀기는 사람도 방으로 끄집어
땡겨서 따뜻하니 밍여야만 좋아. 찌어 질가상에 전기공사 수도공사
도로공사 헌 사람들이 보이든 커피 차판(쟁반)이라도 들고 가야 내
도리를 헌 것 같어. 복 중에 질로 좋은 복은 ‘베플 복’이고 꽃 중에 질
로 이쁜 꽃은 ‘인화꽃’이여.”

(나주 다도면 풍산리 도래마을 윤정남)

“상추에서 단 냄새가 난당께. 작년 가실(가을)에 승근 것이여. 시한
(겨울)내 눈 맞고 바람 맞고 보대깁서도 하늘배기(하늘바라기)로 하
늘만 보고 큰 놈들이라 속이 짱짱해. 사람도 호강만 허고 쭈욱 좋은
질(길)로만 온 사람은 암만해도 무르고 싱겨와.”

(광주 광산구 대촌동 압촌마을 나순자)

“우리 손지가 공부하고 있음 내가 말해. 아가 공부 많이 헌것들이
다 도둑놈 되드라. 맘 공부를 해야 헌다. 인간 공부를 해야 헌다 그러
고 말해. 착실허니 살고 놈 속히지 말고 나 뼈빠지게 벌어묵어라. 놈
의 것 돌려묵을라고 허지 말고 내 속에 든 것 지킴서 살아라. 사람은
속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뱀이니 내 마음을 지켜야제 돈
지키느라고 애쓰지 말어라.”

(순천 송광면 삼청리 왕대마을 윤순심)

시골 할매는 전라도 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존엄함을 설

파하신다. 상추 농사를 지으면서 역경을 이겨내야만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교훈을 에둘러 표현하신다. ‘돈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손주에게 심어 주는 할매의 말씀은 오늘날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말이다.

말의 내용과 담긴 뜻을 곱씹을수록 인류가 추앙하는 사상가들 못지 않은 고매한 품격과 위대한 정신세계가 느껴진다. 당신들의 삶을 관통하는 수십 년 세월의 경륜을 압축하고 풀어내는 가장 맞춤형 말의 그릇이 전라도 말인 셈이다. 이른바 표준말과 사투리를 따지는 게 현실의 말글살이에서 참으로 부질없다 싶고, 표준말의 울타리가 편협한 잣대로 오그라들기보다는 무수한 지역 말을 품어 낼 만큼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절로 일어난다.

4. 사투리는 틀린 말이 아닌 지역 표준어이다

4년 전 일이다. 전라도 말을 겨루는 대회를 기획하면서 이름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관에서 한사코 ‘전라도 사투리 경연 대회’를 고집했다. 사람마다 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듣고 배운 텃말이요, 지금도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말을 변방의 언어로 밀어내는 듯한 ‘사투리 경연 대회’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투리 대회라면 함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결국 ‘아름다운 전라도 말 자랑 대회’라는 이름을 고수하여 올해로 네 번째 행사를 이어 올 수 있었다.

조상 대대로 써 온 지역 말을 지역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지 않는 현상은 서글픈 자기 부정과도 같다. 지역 말이란 그저 표준에서 벗어난 사

투리라고 규정짓기보다는 오래된 삶과 문화의 축적이 빚어낸 다양한 표준말의 일부로 수용되어야 마땅하다.

오늘날 지역 말이 틀린 언어로 치부되고 폄하와 비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는 잘못된 대중문화의 탓도 크다. 지역 말이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의 우스갯소리 소재가 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대개 조직폭력배나 가사도우미 등 부정적인 배역의 대사가 되는 탓이다. <춘향전>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에서조차 월매나 향단은 전라도 말을 하는데 한양 한 번 가보지 못하긴 매한가지인 성춘향의 서울말 대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무릇 말글살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전라도 말은 전라도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과 흘러온 역사에서 자연스레 형성해 온 삶이요 문화다.

노릿노릿, 누릿누릿, 놀짱, 노르스름, 누르스름, 노리끼리, 누르끼리, 노르맹맹, 누르맹맹, 뇌랴다, 놀놀하다... ‘노랴다’는 한마디로는 형용할 수 없는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 식감을 전라도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음식 문화가 발달한 지역의 특성이 전라도 말 안에 가득하다.

“개벼와(가벼워). 암시랑토(아무렇지도) 안 해. 요런 게 무거우면 시상을 어찌 산당가.”

“시상 일이라는 거이 급허니 험다고 되는 게 아니제. 싸목싸목(천천히) 해야제.”

“항꾼에(함께) 노봐 묵어야 재미지제. 항꾼에 놀아야 재미지제.”

전라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암시랑토’,

‘싸목싸목’, ‘항꾼애’를 들 수 있다. ‘암시랑토’에는 스스로에게 닥친 어려움을 깨끗하게 이겨 내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싸목싸목’은 무슨 일이든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는 경구이며, ‘항꾼애’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함축한다. ‘아무렇지도’, ‘천천히’, ‘함께’로는 도저히 말뜻과 어감을 온전하게 주고받을 수 없다.

전라도 말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오래된 역사가 있다.